

# 신범수·한준수 동성고 선후배 듀오 “안방은 내 차지”



오키나와 TIGERS 캠프를 가다

혼돈의 안방 싸움에서 '동성고 듀오' 신범수와 한준수가 기회를 노린다.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 캠프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포지션은 포수다.

KIA는 2017년 김민식을 '우승 포수'로 해서 한승택으로 포수진을 꾸렸다. 지난 시즌에도 KIA의 주전 포수와 백업 포수는 김민식과 한승택이었다.

하지만 이번 캠프에서 두 선수는 대만에 칼을 갈고 있다. 한승택이 대만 캠프에서 시즌 준비를 시작했고, 오키나와에서 훈련을 해왔던 김민식은 지난 19일 대만으로 이동했다.

1·2년 포수의 이탈로 후배 포수들에게 기회가 돌아갔다. 한평에서 훈련을 해왔던 이진경이 포수진에 합류했지만 일단은 신범수·한준수 두 어린 선수의 경쟁 구도다.

두 사람은 동성고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선·후배 사이이다. 신범수가 3학년 때 한준수가 1학년 신입생이었다. 동성고 시절 신범수와 한준수는 각각 '꼬마 포수'와 '대형포수'로 불리며 1학년 때부터 주목을 받았던 유망주였다.

신범수는 작은 체격이지만 아무진 타격 실력으로 1학년 때부터 동성고의 안방을 지켰다. 한준수도 신범수가 졸업한 뒤 팀의 주전 선수로 뛰면서

## 신범수

신중한 성격·아무진 타격 눈길 수비 집중...“기회 놓치지 않겠다”

## 한준수

낙천적 성격에 장타력 장점 “수비·공격에 갈수록 자신감 붙어”

이름을 알렸다.

경쟁자이지만 누구보다 잘 아는 든든한 선후배는 프로에서 처음 함께 스프링캠프를 보내고 있다. 신범수는 입단 첫해인 2016년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 참가했지만 지난해에는 '루키' 한준수에게 기회가 돌아가면서 함께 하지 못했다.

방망이 실력은 두 선수 모두 좋은 평가를 받는다. 신범수는 지난해 1군 데뷔전에서도 인상적인 공격력을 과시하는 등 아무진 타격 실력을 보여줬다. 한준수도 이번 캠프를 통해 타격에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

팀이 0-8 영봉패를 당했던 지난 18일 히로시마전에서 9회 대타로 나와 안타를 기록한 한준수는 20일 요미우리전에서 대타로 나와 2타점 2루타를 터트리며 박수를 받았다.

한준수는 “전에는 볼을 많이 보고 들어왔는데 소다 코치님께서 못 쳐도 되니까 자기 스윙이라고 하셨다. 초구부터 죽어도 되니까 자신 있게 돌리고 오라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삼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신범수는 재능있고 자신있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캠프를 치르고 있다.

신범수는 “진짜 잘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 수비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비를 70% 비중으로 신경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비가 중요한 포지션인 만큼 안방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비가 우선이라는 게 신범수의 생각이 다.

좋은 재능을 갖춘 두 사람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 꼼꼼하고 진지한 신범수와 낙천적이고 여유 있는 한준수다.



KIA 타이거즈의 신범수(오른쪽)와 한준수가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안방 싸움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준수는 선배 신범수에 대해 “진지하다. 매사에 진짜 많이 진지하다. 그 부분이 장점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신범수는 “나보다 야구를 잘하는 것 같다. 여유도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 같다”며 “준수는 낙천적이다. (나도) 성격을 바꾸면 좋겠다. 준수 같은 성격이 포수로서 좋은 것 같다”고 후배를 말했다.

기회의 캠프를 대하는 자세도 조금은 다르다.

한준수는 “지난해 캠프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다.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다. 룸메이트였던 (김)민식 선배가 작년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생각한 게 있는지 준비 잘 해왔다고 칭찬도 해주셨다(웃음). 1년 1년씩 느끼는 것 같다. 매년 후배들이 들어오니까 자리를 뺏기면 안 된다는 걸 느꼈다”며 “점점 수비와 공격에서 자신감이 생긴다. 기회 주실 때 못하면 안 된다. 욕심 내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신범수는 ‘명정승’으로 기회를 잡겠다는 생각이다. 신범수는 “일본의 1군 선수들과 경기하면서 성장하는 기분이다. 상대 국가대표 선수와 타석에 들어가서 인사도 하고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기회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그만큼 안 됐을 때 실망할 수도 있는 만큼 최대한 신경 안 쓰고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wool@kwangju.co.kr



## 한승혁 “1mm 커진 공 ... 잘 적응하고 있어요”

KBO 공인구 국제기준 맞춘 반발계수↓...타자들 “큰 변화 못느껴”

2019시즌 KBO리그에서 달라지는 점 중 하나는 공인구다.

극심한 ‘타고투저’ 극복을 위해 KBO는 공인구 반발계수를 국제 평균치에 맞춰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0.4134-0.4374였던 공인구 반발계수는 0.4034-0.4234로 낮아졌다. 또 공 둘레가 최대치 233mm에서 234mm로 1mm 커졌고, 무게도 1g 정도 늘었다.

KBO 선수들은 이번 스프링캠프부터 달라진 공인구를 사용하고 있다.

캠프 초반에는 ‘공인구’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특히 손 감각이 중요한 투수들 사이에서 공인구는 주요 관심사였다

“1mm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하지만 투수들은 공 크기보다 ‘매듭’을 이야기했다. 기존의 공인구보다 매듭이 넓고 낮아지면서 투수들은 ‘낯선 변화구’를 경험하기도 했다.

연습경기 초반 이민우는 “포크볼 각도가 달라졌다(웃음). 매듭이 낮아져서 착착 안 감기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한승혁도 첫 등판이 끝난 뒤 “매듭이 잘 안 눌러서 공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공 던질 때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승혁은 두 번째 실전 등판 뒤에는 “이제 다들 적응하는 것 같다. 처음보다는 이상한 느낌은 없다.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 반발계수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공 크기 변화는 큰 영향을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달라진 공인구에 낯설어하던 투수들은 피칭 훈련과 연습 경기를 소화하면서 적응 단계다.

타자들은 아직 공인구에 대한 확실한 감이 없다. 최형우는 “아직 100%의 컨디션으로 스윙을 해보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공인구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시즌과 같은 완벽한 몸상태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투수들보다 공인구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에서 타자들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KIA는 이번 캠프에서 5차례 연습경기를 치렀다. 지난 16일 두산전이 비로 취소되면서 모두 일분타고만 경기를 했다.

일본팀과의 연습 경기에서는 KBO공인구와 NPB 공인구가 동시에 사용된다.

KIA 수비 때는 KBO공인구, 일본팀 수비 때는 NPB 공인구를 쓰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KIA 타자들은 NPB 공인구로만 타격을 한 셈이다.

현재까지 공인구의 변화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타격 페이스가 본격적으로 오르고, 본격적인 국내팀과의 연습경기 일정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정확한 투타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wool@kwangju.co.kr



## “1500안타·200 홈런 ... 추추트레인 달립니다”

### MLB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

빅리그 1500경기 출장 -32

1500안타-4·200홈런 -11

“열심히 준비...기대해 달라”

미국프로야구 19년 차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는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세계 최고의 선수와 한 경기만 뛰어 보는 것’이 목표였다”고 19세의 자신을 떠올렸다.

당시와 지금의 추신수는 다르다.

2001년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한 추신수는 2019년 텍사스 최고참이자, 클럽하우스 리더가 됐다. 기록도 쌓았다.

추신수는 안타 4개를 추가하면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1500안타 고지를 밟는다. 32경기를 더 뛰면 1500경기 출장 기록도 달성한다.

21일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만난 추신수는 “개인 기록”이 화두에 오르자 과거부터 떠올렸다. 메이저리그는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2005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추신수는 올해 15번째 빅리그 시즌을 준비한다. 시즌 초에 1500안타, 1500경기를 달성하고 시즌 중반에 200홈런(현재 189개)을 채우는 기분 좋은 시나리오가 눈앞에 있다.

다음은 추신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스프링캠프 진행 상황은 어떤가.

▲오늘 2019년 첫 라이브 배팅을 했다. 과거와 큰 변화는 없다. 지난겨울에 열심히 준비했다. 지금도

‘건강한 시즌’을 목표로 잘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감독이 왔다.

▲젊은 감독님이다. 대화에 전혀 문제가 없다. 다른 팀에 계셨지만 서로 잘 알고 있다. 가까워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이 추신수에게 ‘리더십과 꾸준한 활약’을 기대했다.

▲팀의 리더였던 아드리안 벨트레가 은퇴했다. 사실 벨트레를 대신할만한 선수는 없다.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책임감을 가지고, 팀을 이끌어야 할 것 같다. 조이 겔로나 노마르 마자라도 더는 어린 선수가 아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시즌을 치렀으면 좋겠다. 물론 나도 경기장 안팎에서 팀에 공헌하고 싶다.

-새 감독이 오면서 훈련 시작 시간이 다소 늦어졌는데 여전히 새벽에 출근하는가.

▲나는 여전히 일찍 출근한다. 해왔던 걸 바꾸기는 어렵다.

-1500안타, 1500경기, 200홈런 기록이 눈앞이다.

▲처음 미국 왔을 때 최고의 선수와 한 경기를 뛰는 게 목표였다. 지금 이 선수들과 함께 뛰는 것 자체가 좋다. 오래 뛰다 보니 여러 기록이 세웠지만, 특별히 생각하는 기록은 없다. 1500안타 등에 접근한 것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 나는 한 시즌에 200안타를 친 적도 없는 선수다. 열심히 오래 뛰다 보니 그런 기록이 따라온다. 내가 어떤 기록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지난해 전반기(타율 0.293)와 후반기(타율 0.217) 성적이 편이었다.

▲전반기에 당한 (허벅지) 부상이 후반기에 악영향을 끼친 것 같다. 통증을 느낀 5주 동안 훈련을 하지 못하고 경기만 뛰었다. 지난주에 신체검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트레이너와 얘기했다. 올해는 다른 결과를 내고 싶다.

/연합뉴스